



요약

사설

2024년 4월 18일 - ADMA 창립 15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양성 여정

어머니 마리아.

나자렛. 하느님의 모든 가족

8. 나자렛, 기도의 학교.

겸손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

9. 식별의 여인.

가족연대기

- 파티마 국제대회를 위한 홍보 비디오.

- 2024년 파티마(포르투갈)에서 개최되는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

- 성 바오로 관구 아드마 평의회.

- 북부 아르헨티나 ADMA 지회장들과 위원들의 연례 모임.

- 사망한 아드마 회원들을 위한 연미사.

월간 기도지향

양성중에 있는 남, 여 수도자와 신학생들을 위하여.

사설

우리의 삶에 담긴 하느님의 꿈

P.1

아드마 창립 155주년을 맞이하여, FMA 키아라 카주올라 총장 수녀님께서 축하인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를 공유합니다.

P.3

총장 수녀님께서, 살레시오 카리스마의 중요한 특징인 기쁨에 대해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P.5

P.7

어제, 오늘, 미래의 ADMA에게, 마리아께 의탁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 신앙을 전파하고 희망을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P.9

기억하고, 이를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신앙을 전파하고 희망을 가져다주며, 성모님께서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P.9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키아라 총장수녀님의 친밀함과 우리를 동반하기 위해, 세계 차원의 현존과 활성화로서 루크레치아 수녀님을 통해 우리를 동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역 차원으로 마릴레나 수녀님의 현존과 ADMA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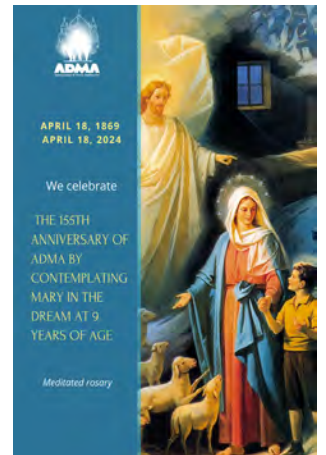
P.10

P.10

P.10

P.11

주시는 여러 지역의 모든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마리아 카주올라 총장 수녀님을 위하여, 총장수녀님의 지향에 따라, 수녀회와 모든 살레시오 가족을 위해, 평화를 위해, 가장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가브리엘 크루즈 트레호 신부SDB,
ADMA 발도코 영적활성자

레나토 발레라,
ADMA 발도코 회장



저와 모든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의 형제적 축하와 기도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사랑하는 ADMA 회원 여러분,

저는 앙골라, 루안다 부근에서, 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 관구장지역회의(CIAM) 9명의 관구장/준관구장들을 위한 연피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앙골라의 ‘도움이신마리아 준관구’ ‘라인하다 파스’를 방문할 수 있었고, 많은 열정적이고 선을 행하려는, 성인들과 젊은이들의 아드마 그룹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어린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창의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마리아적인 특별한 신원의식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155주년을 맞이한 아드마회가 참된 선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살레시오 공동체 안에서 다시 아름답게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르투갈어로 ‘파라벤스’라고 말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869년 4월 18일, 돈 보스코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이 위협에 처해지고, 특히 젊은이들이 종교적 가치로부터 멀어지던 때에, 마리아께 대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도움이신마리아 신심회를 창립했습니다. 창립자는 모든 어머니들처럼 성모님도, 자녀들의 삶 속에 현존하시며,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특히 그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에는 더 가까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기억시키는 임무를, 아드마에 맡기셨습니다.

155년이 지난 지금, 이 임무의 위탁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가지고 계신,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의 시선 아래, 여러분이 씨뿌리고 행하는 모든 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와 모든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의 형제적 축하와 기도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드마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키아라 카주올라 수녀
FMA수도회 총장

양성 여정

어머니 마리아

돈 보스코의 삶과 살레시오 카리스마의 발전에 마리아의 존재와 행위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는 아무리 말해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성인께서는 실제로 그의 생애 말년에 “성모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고 말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교육자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모든 표징과 사건들에 대해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카리스마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영적인 측면과 사목적 측면뿐 아니라, 살레시오의 모든 활동에 마리아가 각인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돈 보스코의 아홉 살 때 꿈은, 현실과 현존의 드라마틱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돈 보스코는 특별히 ‘어머니’와 ‘스승’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삶 안에서 마리아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 두 단어는 신자들,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살레시오적인 마리아의 모성적 중재를 명확히 드러내 주는 단어입니다.

사실 교회의 전통은, 요한복음의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아주 일찍부터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역사적 인물에만 국한되지 않는 상징적인 장면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로 나아갈 용기를 얻고 그분의 희생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모든 제자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은 갈바리아의 성령강림을 예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의 다리 아래 서있던, 교회의 첫 지체인 어머니와 제자 그리고 다른 여인들을 발견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병사의 창은 믿는 이들이 하느님의 마음에 들어가 아들과 딸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의 예표입니다. 또한 이것은 어머니와 제자를 상호 위탁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받아들이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모든 이에게 성모님은 어머니가 되시며, 돈 보스코에게 성모님이 스승이셨듯이, 제자에게도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의 신뢰로, 행복한 순간과 슬픈 순간에도 그의 신앙의 여정을 도우며, 이는 마리아의 모성적 돌봄과 사랑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홉 살 꿈에서 마리아는, 어린 요한의 상황이 매우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드는

것”은 마리아의 임무 중의 하나이며, 돈 보스코도 훗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꿈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면, 친구들의 나쁜 행동에 화가 난 어린 요한은, 그들 가운데 끼어 들어 고향을 지르며, 주먹질을 합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존귀한 남자가 그를 멈추게 하기 위해 개입합니다. 돈 보스코는 그분을 이름으로는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의 겸손함 때문에, 또는 그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끄는 극적인 효과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소년에게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친구들과 제자들에게 다가가라고 초대하십니다. 소년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한 요청으로 보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존귀한” 남자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이끌어 줄 스승을 소개합니다.

다음 목상으로 스승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꿈에 타나나는 어린 요한과 마리아의 관계에 있어서의 특징과 역동성에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성경의 십자가 아래서의 장면과 마찬가지로, 꿈에서 어머니를 제자에게, 제자를 어머니에게 맡기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소년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들의 초대로 요한을 돌보는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어린 요한도 어머니이자 스승이신 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신뢰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아직 이 임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남자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로 맡긴 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이 해낼 수 없으리라는 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어머니의 다정함, 안심시키는 어조, 먼저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행동, 머리를 쓰다듬는 부드러움도 그의 마음을 달래지 못해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꿈이 제시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머물 수 있는 점은, 소년이 그의 지상의 어머니인 맘마 말가리타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요한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 그녀에 대해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어머니가 하루에 세 번 인사하라고 가르친 분의 아들이다”. 마치 ‘너희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어려운 일을 쉽게 하라”
그것은 마리아의 임무 중 하나입니다.**

스승으로 주려는 나의 어머니를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삼종에 관한 말을 듣고, 잊고 있었던 것처럼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의 어머니께서는 허락없이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성인이 된 요한 보스코는 우리에게, 겁에 질린 자신의 어린시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꿈속에서의 그의 응답은 매우 현실적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힘들고 느린 성소 식별 여정과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꿈은 분명히 길을 비춰주는 빛의 선물이지만, 다른 모든 하느님의 선물과 마찬가지로 식별의 어려움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린 요한은 슈퍼 히어로도 아니고 미니어처 성인도 아닙니다. 그는 동료들을 위해 선을 행하려는 큰 열망을 가진 생동감 넘치는 소년이었지만, 아직은 천국에 대한 것보다는 먼저, 육신의 어머니의 보살핌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돈 보스코의 증언과 역사적 연구에 따르면 말가리타는 신앙의 여정 안에서 돈 보스코가 온 정성을 다한 오라토리오와 예방교육의 마리아의 천상적 사랑의 중재자였습니다. 이 두 여인의 현존과 행위는 어린 요한의 정서적 발달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방식,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삶에서 여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지울 수 없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돈 보스코의 꿈에 나타난 마리아의 모성적 현존은 그의 일생에 걸쳐 반복됩니다. 이 증거들을 연대기적 순서로 따라가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님의 어머니에 대한

요한의 태도가 어떻게 성숙해져가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임무, 성모님과 상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도움을 받았으며, 점차적으로 자신을 성모님께 맡기고, 그분의 영감과 인도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마리아의 여러 현존을 의식하게 해주는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 메달, 묵주, 성모님 상본 - 일상의 삶 속에서 마리아의 보이지 않는 현존을 인식하도록 오라토리오의 청소년들을 교육했습니다.

살레시오회 사업의 발전은 “모두 성모님께서 하셨다”고 말한 것은,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이시며 스승이셨기 때문입니다. 카리스마가 꽃필 수 있었던 특징은, 마리아와 요한이 모두 꿈에서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족, 교육과 사목 활동 안에서 피곤하고 의욕이 없을 때, 카리스마가 약해지고 의욕이 없을 때, 우리가 마리아께 드리는 공간과 관계에 대해 질문해 봅시다. “모든 것을 하신 분은 성모님”이시고, 그녀의 임무는 “어려운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므로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성모님께로 돌아갑시다!

린다 포케르 수녀 FMA



나자렛. 하느님의 모든 가족

8. 나자렛, 기도의 학교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성가정 축일 삼종기도에서 ‘나자렛 집은 마리아를 모범으로 하느님 아드님이 드러난 심오한 표징으로 들어가게 하고, 묵상하며 경청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기도의 학교’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관상가들이 나자렛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으로부터 자비로운 아버지의 얼굴을 관상하셨고, 시간 안에서 그분 자신이 “자비의 얼굴”이었으며, 마리아는 영혼의 눈 뿐 아니라, 육신의 눈-어머니의 눈-으로도 자비의 얼굴을 관상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돌보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관상했습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거룩함, 하느님 (예수님)의 온전한 봉헌과 인간(마리아)의 온전한 받아들임 사이의 완전한 만남,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관상했습니다.

관상하는 것이 하느님의 신비의 현존을 인식하는 것이라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엠마누엘을 인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정한 특권을 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폰 슈파이어는 “원죄 없으신 마리아와 원죄로부터 분리된 요셉은, 아들이 성장해가는 관계적 상황 속에서 현존” 하시고, 성자께서는 그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실 준비를 하십니다. 이러한 특권은 우리와 그들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모범과 매력 때문만도 아니며,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중재자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다른 이들을 기도하게 하고, 주님의 전당에 머무는 사람들만이 다른 이들을 그곳에 들어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몸과 영혼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성부 오른편에 계신 아드님의 빛나는 모습을 관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의 스승이십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그 자신으로서, 몸으로까지 관상하셨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마리아의 몸에 하느님께서 거하셨기 때문이다. 성자께서는 이 세상에 정확하게 마리아 안에 거하셨다! 이 거룩한 신비는 놀랄 수밖에 없고,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 줄 수밖에 없다. 엔조 비양키는 “마리아는 그분을 맞아들이는 장소이며 공간으로,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곳에 머무시는 그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장소, 영이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장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지 않는 존재로, 일시적인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장소입니다. 하느님의 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품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태초에 하느님과 함께 계신 분이, 마리아 안에서 육신을 취하시어,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보이는 현존으로 그녀 안에서 들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관상으로 우리도 관상할 수 있게 되었고, 마리아의 하느님 체험 덕분에 우리도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서 마리아는 감사의 중재자일 뿐 아니라 하느님 은총의 중재자이십니다!

기도와 삶

우리가 기도에 대해 말할 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른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와 요셉의 체험뿐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시절과 가정에서의 삶,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신비 체험을 통해, 기도는 삶을 깊이 있게 하고, **우리를 살아 있게 하며,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다른 모든 체험들을 빛나게 해주는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집과 직장을 떠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진정한 기도는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빛이며 삶의 여정을 위한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이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굴곡진 일상 안에서 본질적인 것들을 재발견하기 위해, 잠시 멈추어, 평범함 속에서도 비범함을 추구하며, 평범한 매일을 축제로 만들어,** 동요와 분산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삶의 조각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굴곡진 것도 바르게 펴서 쓰시는 놀라운 분이시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신뢰와 위로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마 8,28).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루카 18,1)고 초대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누구보다 먼저 기도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는 하느님 아버지 곁에서, 나자렛에서는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살아있는 기도가 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기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30년 동안 숨은 생활을 하시며,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성숙시키셨듯이, 위대한 업적은 침묵으로부터 탄생했으며, 행동하기 전에 마음에서 솟아나야 하고, 멋진 **영감, 온순함, 사려 깊은 식별,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 위탁하는 마음의 겸손, 모든 일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침묵과 기억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끊임없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것은 보호해 주어야 하는 분위기이며, 어린시절부터 교육되어야 하는 내적 훈련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는 것에 대해 피로를 느끼며, 수천 가지 일로 분심하며 집중하지 못하므로, 나자렛으로 가서, 소년 예수와 마리아, 요셉의 모범을 본받아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의 학교인 성가정에 대한 바오로 6세의 말씀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자렛은 우리에게 침묵을 가르칩니다. 오! 우리 시대의 과장되고 소란스러운 삶 속에서, 수많은 소음과 놀라기 절할 만큼 시끄러운 고함소리를 들으면서, 침묵이 얼마나 경탄스럽고, 우리 안에 꼭 필요한 분위기이며, 우리 안에 다시 조성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를 느낍니다. 나자렛의 침묵이시여, 하느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영감과 참된 스승들의 권고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선한 생각으로 내적인 삶에 집중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오직 하느님만이 보실 수 있게, 기도와 내적인 삶, 묵상, 공부, 일을 준비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가르쳐 주십시오.”

두번째로 기도는, 거룩한 사랑은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랑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자렛 집에서는 각자가 자기를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성 요셉은 예수와 마리아를 부양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과 그분의 어머니의 정결을 보호하기 위해 걱정하며 고통했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과 너무나도 정결한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녀의 생각, 행동, 일, 그녀의 하루는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고 그의 피조물이 되어, 그들의 말을 듣고,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들의 원의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항상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하느님 안에서 기억하는 일이며, 영혼을 소멸시키는 나르시즘을 거슬러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첫번째 원천입니다.

로베르토 카렐리 SDB

가족과 함께 기도하기

기도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므로, 교황님의 가르침을 볼 때, “기도하는 가족은 일치합니다”(AL 227). 그러므로 가족이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이 너무 많거나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기가 어렵다면, 하느님께서 원하신 사랑은 없습니다. 콜롬보 추기경은 성가정에 대한 빛나는 묵상을 통해, 세속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의 분위기 안에서 살아가는 현대 가정에 대해, 적어도 “하느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사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자렛 가정과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기도의 본질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는 모든 일, 평범한 행위(나자렛에서의 식사와 단식, 회당에서의 전례, 예루살렘 순례 등), 특별한 사건(나자렛에서는 인구조사, 도피, 유배, 예수님을 되찾음 등), 기쁨의 순간과 희생의 순간들입니다. 나자렛에서는 이 모든 일이 예수님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침묵

겸손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

9. 식별의 여인

루카복음이 예수님의 어린시절을 통해, 특별한 방법으로, 소녀 마리아가 식별하는 것을 조명해 주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 공생활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마리아를 성숙한 식별 능력을 지닌 여성으로 제시해 줍니다.

식별이란 미래의 싹을 오늘 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레시오적 표현으로 한다면, 식별은, 개별적으로 하느님께 협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꿈꾸는 미래가 실제로 꽃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식별”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의 핵심 단어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황님은 예수회 회원이며 식별에 대해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회의 카리스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별은 이냐시오의 카리스마에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식별은, 모든 신자가 세례와 함께 받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자의 자유와 의지에 대한 항구한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금과 같이 불확실하고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에는, 위험이 따르더라도 식별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식별의 반대는, 규칙과 모델을 노예처럼 적용하는 것으로서, 질서는 잘 잡히겠지만 생명은 거의 없는 교회/박물관입니다. 그러나 식별하는 교회는, 교회/정원입니다. 명백한 가능성이 없는 약간의 혼돈과 잡초, 조금은 비뚤어진 줄기를 피할 수 없지만 생명이 있고 생명의 열매인 기쁨, 평화, 자비, 절제, 사랑, 관대함, 마음과 역사 속에서 성령의 활동에 대한 충실함(갈라 5,22)이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별하는 교회는, 현대 사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활성화하는 것임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식별하는 능력은 프란치스코가 생태적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걸어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실 통합생태학은 마법의 공식이 아니라 시선의 전환에서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창조의 아름다움과 모든 피조물의 귀중함에 대해 묵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창조주 하느님의 인호가 그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안에서 창조 되었고,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 손으로 그들을 돌보고 가꾸라고 맡기셨습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선택 안에서 생명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식별의 필요성이 생겨났습니다.

현실을 구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창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사실 영원히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탄생에서 죽음까지 이어지는 순환으로 완성됩니다. 인간은 비록 지능, 관계 맺는 능력, 말하는 능력, 창의성으로, 창조주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지만, 자신의 존재와 소유를,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만, 영원히 이 땅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별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올 사람들의 최대의 선익을 위하여, 지속 가능성의 법칙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는, 신랑 신부의 미래를 걱정하고, 무엇이 그들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상황을 좋게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자문하는 여성이기에, 식별하는 여성입니다. 표징으로서 포도주는 순간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뿐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삶에 대한 열정, 삶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축하하는 능력, 기쁨과 축제에 대한 인간의 전형적인 욕구를 나타냅니다. 마리아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당신 아드님에게서 봅니다.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총명한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십니다. 그는 축제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 기적에 참여하게 합니다. 하인, 잔치 말은 이, 신랑과 신부, 예수님, 제자들.



가나에서 마리아는, 신앙 여정을 시작하는 과정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 주인공으로 행동하거나 자리잡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주인공으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마리아는 축제에 현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과 신앙의 능동적인 만남이 되도록 행동합니다.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작은 실천들을 선택하면서,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에게, 우리가 지구공동체를 위해 걱정하는 것들을 용기있게 말하며,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실천합니다. 이웃과 자연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같은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생태적 회심의 표시로 같은 지역의 다른 기관, 단체들과 함께 많은 이니셔티브가 아니더라도, 공통의 이니셔티브로 변환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관계를 위한 돌봄, 네트워크 의무는 통합 생태학에 속합니다. 물론, 그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 그들의 입장과 신념을 존중하면서 행동하는 문제이며, 마리아는 결코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이 분야에서도 스승이십니다. 개입해 달라는 요청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첫 반응에도, 마리아는 서두르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종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아들에게 필요한 응답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에게 시간을 주며, 고집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의 지향과 영감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한 걸음 물러나, 예수께서 직접 종들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인정이나 박수를 구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을 목표로 하는 행동과, 봉사의 모델을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구조와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가나에서는 포도주가 부족하여 잔치가 실패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본당,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에게는 어떤 실존적 실패의 위험이 있을까요? 관할 당국 앞에서 이러한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난한 이들과 땅의 부르짖음을 듣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과 모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그분의 성령의 힘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모두의 선을 위해, 우리가 더 나은 것을

하도록 불리움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모든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마리아께 청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당신 식별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라고, 간청합시다.

린다 포케르 수녀FMA

가족의 연대기

파티마 국제대회를 위한 홍보 비디오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파티마에서 열리는 제9회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https://mariaauxiliadora2024.pt>) 등록이 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살레시오 가족의 이 중요한 행사의 조직팀은 전 세계 살레시오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9개의 홍보 비디오 시리즈입니다. 해당 링크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 2024년 파티마 (포르투갈)

상호 연대의 정신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그룹의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연대기금”이 토리노 프리마리아에 설립되었다.

모든 기부금은 ADMA 은행계좌로 송금

- (IBAN IT16 V030 6909 6061 0000 0130 575)

- 하거나 다음 링크

<https://www.admadonbosco.org/>의 지침을 따라 보낼 수 있다.

기부를 위해서, 또 기부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룹 대표는 다음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 문의할 수 있다: adma@admadonbosco.org



받은 금액은 다양한 필요에 따라 쓰여지게 되며, 참가자 개인에 대한 별도의 요구는 없다.

“주님께서서는 기쁨으로 섬기는 자를 사랑하신다.”



내가 · 너에게
스승을 · 주겠다

도움이신 마리아 제9차 대회

파티마 2024년 8월 29일 - 9월 1일

등록이 시작됩니다

www.mariaauxiliadora2024.pt

성 바오로 관구 아드마 평의회

브라질 상파울로 - 브라질 상파울로 살레시오 관구(BSP)의 ADMA 지회 대표들이, 3월 23일, Bom Retiro의 “우리의 도움이신 마리아” 본당에서 개최된 관구평의회에 참석했습니다. BSP 관구의 22개 지회 중, 17개 지역 지회대표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살레시오 가족 담당인 Luis Antonio Amiranda, 아드마 관구담당 Vinícius Ricardo de Paula 신부, ADMA-Bom Retiro의 Luiz Gonzaga Piccoli 신부, ADMA-Campinas의 Marcos Sérgio da Silva 신부가 함께 했습니다. 포르투갈,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 주제인 “내가 너에게 스승을 주겠다”를 숙고하고, 나눔, 노래, 기도, 묵주기도, 참가자들 사이의 큰 기쁨이 살레시오 카리스마를 다시 불붙게 하였습니다.



북부 아르헨티나 ADMA 지회장들과 위원들의 연례 모임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거룩한 구세주의 제자들의 피정집에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아르헨티나 북부 도움이신마리아회(ADMA) 지회장과 관계자들의 연례 모임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북부 20개 지역 중 12개 지역의 24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온라인으로 새로운 아드마 프리마리아의 영적지도자인 가브리엘 크루즈 신부와 기쁘게 인사를 나누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이어서 알렉산드로 구에바라 신부의 “내가 너에게 스승을 주겠다”라는 주제의 영적강화와 아드마 영적활성자인 올란도 산케즈 신부 SDB가 피정을 지도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총장신부님의 2024가족생활지표와 지역 아드마의 현실 인식, 마지막날에는, 산타페 젊은이들의 아드마에서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 전파를 위한 다양한 계획과 ADMA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사망한 아드마 회원들을 위한 연미사

매월 24일 전 세계에서 사망한 모든 아드마 회원들을 위해 토리노 도움이신 마리아 대성당에서 오전 9시에 추모미사가 거행됩니다.



월간 기도지향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뜻에 따라 전 세계 모든 Adma 회원들의 기도를 하나로 모으려고 합니다.

양성중에 있는 남, 여 수도자와 신학생들을 위하여.

우리는 남녀 수도자들과 신학생들이, 인간적, 사회적, 영적, 공동체 안에서의 양성을 통해 그들의 성소 여정이 성장하여 신뢰받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 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https://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